

## 기독교무용 작품 「70년, 회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박순자(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임혜영(Argon Dance Company 수석단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무용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더불어 직·간접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대중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무용 작품 「70년, 회년의 춤」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본 작품이 대중화의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기에 공연예술의 영역에서 많이 배제되었던 기독교무용이 대중에게 보다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중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70년, 회년의 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작품의 요인은 첫째, 역사성 둘째, 사회성 셋째,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넷째,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에게 동일한 공감대 형성 다섯째, 적합한 극적요소이며 이러한 5가지 요인을 통하여 연구한 기독교무용의 대중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무용은 전도 및 선교를 중심으로 공연되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로 드러질 수 있도록 높은 완성도를 기해야 한다. 효과적인 공연을 위해 사전 답사 통하여 무대로 사용될 공간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 공연에 맞는 예배적인 의상, 내용과 역할에 맞는 분장, 작품의 이해를 돕는 조명, 무대장치 등을 고려하여 회중이 방해 받지 않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철저한 기도와 영성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무용 작품은 성서를 기본으로 하여 선교의 도구 및 복음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작품의 창작이 수반된다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연예술로서 기독교무용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정서, 사회성을 극대화한 무용공연을 제작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적 기술과 기독교무용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작품 내용이 관객들에게 좀 더 깊은 감동을 전달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용수들의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기독교무용의 안무자는 전공, 비전공자의 구성을 잘 융합하여 단원들의 영성과 무용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화로운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무용은 후원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성경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예술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중하며 기독교무용인은 춤추는 목회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제어 : 기독교무용, 선교무용, 회년의 춤, 역사성, 대중화, Argon Dance Company

---

\*) 본 연구는 2015년 임혜영의 석사학위논문 기독교무용 작품 「70년, 회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을 수 정·보완하였음.

## I. 서론

무용예술은 몸의 움직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는 이들에게 감동까지 전달할 수 있어야 생명력 있는 무용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용예술은 내면적 아름다움을 표출하기 보다는 외관 중심으로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정육, 탐욕에 에너지를 소모하며 유한적 행복에 자신을 가두는 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의 본질이나 가치, 존엄성 보다는 신체노출로 자극성을 더하고, 다양한 내면적 메시지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릇된 편견과 왜곡된 신체상을 주입하며, 자극적인 성문화를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중을 잃어가는 무용문화도 창출하게 된 것(김수진, 2015, p.1)이다.

이에 반해 개인의 신앙고백이며, 삶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무용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짓, 율동 등 무용적인 요소를 포함한 움직임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추는 일체의 것(박순자, 2004, p.84)으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통해 창작되어지고 공연되어지지만, 기독교 무용이라고 해서 회중의 시선을 무시 할 수는 없다. 기독교 무용 역시 무대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시간만큼 존재하는 일회성 예술로서의 시간예술이자 공간예술이기 때문이며 매회 똑같은 작품으로 춤을 추어도 회중이 보고 느끼고 전달받는 감동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무용가가 한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하여 춤을 추어도 그 속에서 감동받고 표현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일회성이 갖는 기독교무용 예술의 또 하나의 특징(<http://m.pckworld.com>)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로서의 기독교무용은 성경의 주제나 기독교 내용을 삶 속의 모든 소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춤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무용은 국내·외를 망라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독교무용에 대한 가치는 복음과 선교 이외에도 병든 현대인에게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안수민, 2011, p.3). 이렇듯 작품을 통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흥과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적인 공연예술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예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기에 합당한 것이다. 더불어 기독교무용은 복음의 도구이며 섬김의 기능을 가진다. 이에 오늘날 다수의 기독교무용 단체에서 여러 장르의 기독교무용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뮤지컬 형태의 공연, 무용극 형태의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부담 없이 공연되어 질 수 있고, 공감될 수 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에게 공연되기에는 종교적 관점에 집중이 되어 보편적인 공감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비추어 볼때, 「70년, 회년의 춤」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일제식민지와 광복 전·후, 남·북한의 분단의 아픔, 산업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번영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의 정세와 미래의 발전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70년, 회년의 춤」을 안무한 안무자로서, 또한 참여한 무용수로서 이 작품이 아픈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어두웠던 시절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민족의 번영과 미래 지향적 의식을 심어주어 눈물, 기쁨, 화해의 감동을 무용극으로 표현함으로써 기독교적 예술작품의 대중화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70년, 회년의 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기경하여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무용 작품으로서 모든 세대가 같이 호흡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독교무용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70년, 회년의 춤」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같이 호흡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독교무용의 대중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연구를 병행하였다. 안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70년, 회년의 춤」을 창작하게 된 배경 및 작품의 탄생 배경, 작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한 무용수 및 관객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작품의 특성을 분석함을 기독교무용이 대중화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제한점은 첫째, 본 공연에 참여한 아르곤 댄스 컴퍼니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작품에 참여한 무용수들로 인터뷰를 제한하였다. 둘째, 기독교무용을 관점으로 대중화 방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70년, 회년의 춤」을 중심으로 공연의 취지와 내용, 성과를 안무가의 인터뷰 및 관객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성공한 기독교적 무용사례를 적용시켜 대중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II. 무용 대중화의 의미와 특성

### 1. 무용 대중화의 의미

무용의 대중화란 어떤 특정인이 향유하고 느끼는 개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것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예술문화를 말한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곧 무용 대중화가 추구하는 목적인 것이다. 또한, 첨단정보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취미나 취향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유지하며 누리고자 한다. 그러한 대중의 삶 속에서 무용이 어떤 위치를 지니게 되는가는 무용이 얼마나 대중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무용예술작품의 대중화는 일반인들이 공연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게 되고, 가까이에서 쉽게 관람 할 수 있는 접근성과 비용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감동받는 작품(또는 장르)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이종원, 2007, p.251). 즉 무용 대중화의 의미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관객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통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의 폭 넓은 선택과 자기중심적인 작품에서 벗어나 일반 관객의 의식이나 그들의 관심사 또는 사회적으로 어렵지 않은, 보다 쉬운 소재로 작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고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실 된 춤과 내용을 보여준다면 공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것이고 관객의 인식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접근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중과의 소통 할 수 있는 관심과 취향에 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긴 시간 무용은 사회적 인식 부족과 열악한 지원, 부족한 무용교육으로 폭 넓은 관객층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용 대중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으로 전인격적인 무용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 무용 수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적, 정서적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무용예술 인구 확보와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의 무용을 이끌고 있는 대학에서도 각 전공을 살려 발전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 생산적인 인력을 창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 예술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들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대중과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무용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세대가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무용예술이 활성화됨으로 무용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 일반적 무용예술의 대중화 성공사례

일반적인 무용예술의 대중화 성공사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수의 공연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그 중 김민지(2012)의 「무용공연의 대중화를 위한 관객개발 방안 연구」가 본 연구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 성공사례로 선정하였다. 김민지가 선정한 국립무용단의 대표적 한국 창작 작품인 「춤 춘향」과 한국 전통춤인 「코리아 환타지」는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대중에서 성공적으로 상연되었으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관객개발을 통한 대중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선행된 성공사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춤 춘향

춘향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고전으로서 남녀의 사랑, 아녀자의 본분 등을 표현한 작품으로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민족적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춤 춘향」은 어느 문화에서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무용단에서 공연된 「춤 춘향」은 무용수들의 기량면에서나 공연연출, 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춤 춘향」이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고전과 더불어 추상적이지 않고,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는 고전이기에 무용수의 캐릭터와 무대연출과 효과가 무용과 더불어 연극적(마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춘향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보편적인 사랑이야기로 서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춤 춘향」의 성공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전통의 고전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누구나 쉽게 알고 있는 주제를 무용을 통해 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남녀노소 쉽게 즐기고 감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무대를 연출했다는 점이다. 춘향이의 그네 타는 장면, 기생들의 점고장면, 우물가 여인들의 놀이장면 등이 있다. 특히, 관객이 작품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도록 현장감 넘치는 다양한 무대의 세트가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었다.

셋째, 무용수들의 노련한 춤 실력과 연기력으로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해내었다. 무용수들의 다양한 모습은 관객들로 부터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춤 춘향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화에 성공한 대중 친화적인 국립무용단의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코리아 환타지

「코리아 환타지」는 한국에서의 작품 중 대표적인 갈라쇼(gala show)로서 1970년대부터 70여 개 국에서 700여 차례나 공연할 만큼 유명한 국립무용단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매년

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수의 지방공연에 초청되어 활발한 공연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갈라쇼 형식의 「코리아 환타지」는 <장고춤>, <부채춤>에서부터 창작춤인 <신라의 빛>, <북의 대합주>등 다양한 한국 전통 춤과 창작품 약 11개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인원구성면에서는 솔로춤과 듀엣춤, 군무 그리고 여자춤과 남자춤으로 나누었으며 장르적 구분으로는 전통춤과 창작춤, 소품을 사용한 춤과 타악을 사용한 춤 등 다양한 구성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적인 색채가 다양하게 담겨져 있으며 동시에 다이내믹한 창작춤이 자연스레 섞여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코리아 환타지의 작품은 전체의 강약과 고저를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코리아 환타지」의 성공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한국의 민속적 특성을 살린 작품들로 구성된것이 강점이다.

둘째,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다수의 지역순회공연과 해외에서의 잦은 초청공연으로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많은 접근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한국 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춤을 좀 더 널리 알리는데 기여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한국 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중성을 지향함으로 관객 접근방식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예술성 지향의 측면에서 한국적 정서를 극대화한 공연을 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 3. 기독교무용 예술의 대중화 성공사례

기독교예술과 기독교적 예술은 다르다. 기독교 예술은 성경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기독교적 예술은 성경을 바탕으로는 하고 있지만 세속의 형태를 가미하여 왜곡된 형태로 대중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이 기독교적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함예원(2014)은 기독교 공연예술을 성경을 기초로 했지만 왜곡된 해석으로 기독교적인 색깔보다는 대중적 색깔이 더 짙은 ‘기독교적 공연예술’과 성경을 기초하여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기독교 공연예술’로 나누었으며 두 종류의 기독교 공연예술 모두 선교와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공연예술로서 기독교 문화라고 하였다. 이에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와 「현대무용 Superstar Jesus Christ」, 「뮤지컬 Godspell」, 「오페라 Salome」는 높은 작품 완성도를 보이며 흥행에도 성공한 기독교 공연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작품을 선사 했다는 점이다. 이에 기독교, 기독교적 예술작품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향유되게 되었으며 그 내용분석은 다음의 표1과 같다.

구분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오페라 Salome	현대무용Superstar Jesus christ	뮤지컬 Godspell
초연	1971년 10월 21일 마크 헬리어 극장	1905년 12월 9일 드레스덴 궁정 오페라 극장	1973년 4월 21일 이화여대 대강당	1971년 5월 17일 오프-브로드웨이
형태	세속적·대중적		종교적·대중적	
표현	연기와 노래(송스루)	연기와 노래	연기와 무용	연기·노래·스토리텔링

음악	실험적인 록음악	실험적인 오페라음악	실험적인 록음악	록음악
시선	유다	살로메	예수	
대본	성경을 기초한 왜곡된 표현		성경 그대로 전개	
결말	슬픈 (A Sad ending)	비극적 (A Tragic ending)	행복한 (Happy ending)	교훈적 (Didactic ending)
특징	록 뮤지컬의 대중화	사실주의적 표현의 오페라 제 시	현대무용의 대중화	성경 속 비유들을 재해석하여 제시
종교성	-성경의 왜곡된 내용 -예배공연이 아닌 대중무대공연		-성경 내용의 신앙적 특성 -예배공연부터 대중무대 공연까지	
예술성	-다양한 캐릭터들의 성격으로 극을 이끌어 나감 -현대적인 감각으로 장면, 의상, 무대를 연출			
사회성	특수계층인 종교인에게 국한된 공연이 아닌 종교인과 비종교인인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 하여 공연예술로 자리 잡아 관객에게 전달되는 역할			
공동점	-성경에 기초로 만들어진 기독교적 성향을 띤 공연예술 -성경 인물들로 구성된 작품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으로 사회적 이슈를 나눔 -작품의 높은 완성도로 흥행			

<표1. 기독교: 기독교적 예술작품의 성공사례>  
<출처: 2014년 함예원의 연구 분석표>

기독교 무용이라는 장르에서 대중화되거나 혹은 대중화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한 작품으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조승미 발레단의 작품을 통하여 기독교무용의 대중화에 대한 노력을 찾을 수 있다.

조승미 발레단은 1980년 창단된 이래 80여 회에 달하는 국내외 공연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 발레단으로 성장하였다. 한양대학교 무용과 교수였던故조승미 교수의 발레단이다. 캐나다·미국·일본·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초청공연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故조승미 교수가 안무한 한국 창작발레인 《모세의 기적》(1989), 《삼손과 델릴라》(1992), 《요셉》(2005) 등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인 《요셉》은 전체 3막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셉》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요셉 형제들의 역동적인 춤과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는 몽환적인 신비함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발레의 아름다운 기법과 정교한 동작들을 통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한국창작발레를 통한 조승미 발레단의 작품들은 특히 클래식 발레의 완벽한 구현과 고급 예술 발레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 발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의 작품들을 통한 기독교예술의 성공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의 스토리텔링이 원천소스로서 활용되어 시대적 변화와 함께 현대문화에 접목시켜 나타낸 작품의 완성도를 통해 종교를 막론하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흥행할 수 있었다.

둘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창조로 많은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문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작품으로 공연을 선사하였다.

셋째,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닌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기독교공연예술의 새로운 콘텐츠로서 작용을 하였다.

넷째, 종교 공연예술보다는 종교성이 부여된 예술이라는 문화 속 공연예술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작품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심리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대립, 진리와 거짓, 사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존재의 본성과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여섯째, 위의 네 작품들이 준 종교의 사회적인 영향은 기독교 문화가 공연화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사했다는 점이다. 자칫 종교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을 현대 문화에 맞게 새로운 시도와 창의력으로 일반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공연예술로 전달되어진 것이다.

위의 작품 모두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서 기독교 공연예술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도구나 방법으로 활용되어 기독교 공연예술로서 관객에게 전달되었다.

### III. 「70년, 회년의 춤」 작품 분석

#### 1. 작품의 탄생 및 배경

2015년에 안무된 「70년, 회년의 춤」은 특별히 해당 년도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年)였다. 교계에서도 광복 70년을 기념하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을 선행하고자 하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라는 큰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때에 이루어진 Argon Dance Company의 「70년, 회년의 춤」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기독교무용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획이자, 이루어져야 하는 기독교 예술이자, 기독교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의 흐름이 세상에 부각이 되었다면 「70년, 회년의 춤」은 70년이 갖는 ‘회년’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안무가 이루어졌다. 성서에서 회년은 구약의 레위기 25장 8~25절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땅과 집과 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노치준, 1998, p.177). 회년이 갖는 의미는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는데 감정적으로는 자유함과 그에 대한 기쁨을 표출하고 있다. 회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yobel” 요벨은 기쁨에 찬 소음과 나팔을 불며 외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통하여서도 그 감정적 의미가 기쁨임을 알 수 있다. 이 선포함은 슬픔이나 애통함이 아닌 복음, 곧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년은 회복과 이를 통한 기쁨 해를 뜻하며, 모든 분열과 어려움이 종식되는 해라 할 수 있겠다. 즉, 회년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선정된 「70년, 회년의 춤」의 주제는 7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통한 회년의 의미를 극대화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2. 작품의 내용

「70년, 회년의 춤」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장	소주제	시대	작품 및 내용 구성
1	환난 I	구한말, 일제강점기	수제천, 태평무, 선악말씀, 파파 · 환란
2	광복	광복	만세운동, 해방 발표
3	환난 II	50년대	6·25전쟁, 맥아더의 종식선언
4	기경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경제발전에 몰두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
5	회복	현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간구
6	기쁨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만이 나타나기 간구

<표2. 「70년, 회년의 춤」 작품 내용 및 구성>

제1장 ‘환난 I’은 일제 식민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는 구한 말 궁중 내 아녀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수제천과 태평무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광복’은 1945년 8월 15일 백성들의 독립만세의 합성을 통하여 자유를 갈망하던 우리 국민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전체 군무로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였으며, 3·1절 노래와 태극기를 소품으로 민족의 자주독립의지와 열망을 표현하였다

제3장 ‘환난’은 6.25전쟁을 부제로 표현하고 있다. 총소리, 대포소리 등과 같은 효과음을 통하여 전쟁을 표현하고 국민들의 공포를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선포를 통하여 전쟁의 종식을 표현하였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이라는 찬양을 통해 ‘에스겔 37절’이라는 작품을 안무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한국, 희망 없는 국민들을 회복 시켜 달라는 고통의 절규를 무용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제4장 ‘기경’은 경제부흥에 사활을 걸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만큼 모든 국민이 참여했던 범국민적 새마을 운동과 경제발전, 그 속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점들을 무용극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앞선 작품들과는 다른 골계미를 추구하였으며, 대중음악을 함께 사용하여 그 시대의 타락상을 표현하였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황무함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부흥의 물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제5장 ‘회복’은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사회가 다시한번 회복되어야 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한사람, 한사람이 결단함으로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민족의 결단을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먼저 믿는 신앙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믿음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새 나라 새 땅으로 거듭나 인류의 횃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과 기대를 표현하였다.

제6장 ‘기쁨’은 격정적인 기쁨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죄사함을 받은 인간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회복하고 기경하며 결단할 수 있는 단호함을 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구함으로 「70년, 회년의 춤」은 마무리 되었다.

이상의 작품의 배경과 내용을 통하여 「70년, 회년의 춤」은 한반도의 정세와 미래의 발전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아픈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어두웠던 시절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을 얻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제시하는 표현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의상 및 소품목록은 다음의 표3와 같다.

		의상	소품	슈즈	인원
환 난 I	수제천 태평무 말씀	당의(흰2,노,파,분,연,분),화관무치마	큰머리 붉은비녀 검정쪽두리	버선	7
	파괴, 환란	일본:검정상하,검정더거리,양말 허름옷(남/여 한복들)	일장기3 봉3	일본군- 검정신발	18
	이치, 니, 산			그외 슈즈	
	승화			버선	1
	봉선화	적삼,기름부으심 속치마,겉치마, 눈물 고름(빨간)		×	9
광 복	독립	여러 한복들/ 봉선화팀만 조끼 앞치마(개인,선교단)	태극기 (미정)	×	26
환 난 II	6.25	피난 복장(허름한 한복) 및 붓짐등...			8
	에스겔			×	1
기 경	새벽중	남자교복, 모자: 70년대 (4명) 새벽중: 개인의상 춤바람: 개인(4명) 부흥: 푸른색 민 원피스,흰치마	경찰/ 호루라기 작은수첩등	×	17
회 복	어느 민족	천국잔치 치마, 흰 저고리(긴 것) 천국잔치 속치마		슈즈	14
	눈을 들어			슈즈	1
기 쁨	아리랑	흰갑사, 천국잔치 속치마		슈즈	14
	아버지			×	1

<표3. 「70년, 희년의 춤」의 의상 및 소품 목록>

「70년, 희년의 춤」 조명 큐시트는 다음의 표4과 같다

순 서	제목	시간	의상	조명	설명
1	수제천	01:35	춘앵전 의상 (빨간치마, 노랑저 고리, 원삼)	밝고 화려하게 (노랑, 초록)  등장시 빛	무용수 하수중간등장  상수에서 등장
	태평무	03:27	핑크, 노랑, 파랑, 연두 당의	동양적 오리엔탈 느낌 무용수 등장시 밝게 반원의 조 명	중앙
	선악말씀	00:14		전체적으로 어둡게. 밝고 어두운 조명을 군데군데	

				(5곳 정도)	
2	파괴, 환란	01:13	허름한 한복	고전태 색에서 더 어둡게 (파랑, 빨강 섞어서)  왜군 등장시 각각 탐 (움직이면서 없어짐)	
3	이치,니,산	02:10	블랙	밝되 너무 밝지 않게 양쪽 사이드에서도 라이트	
	승화	06:11	모시한복	팔로우 or 노랑+ 벽면은 파랑 = 살짝 연두빛 or 남색 / 부채 잡을 때 (음악 바뀔 때)는 붉은 빛으로 (강렬하게)	하수 뒤 좌측에서 등장  큰태극기, 부채 상수 앞
4	봉선화	03:06	밝으면서 슬퍼보이게/ 전체 : 초록 + 노랑양쪽 사이드 : 남색 or 밝은 청색 등장 시 사선으로 길조명 원 - 노랑 , 사이드 - 파랑		
5	합성소리 독립선언 문	01:11	감동, 감격!! 전체 밝게		
	3·1절 노래			파랑+노랑	태극기 뿔 - 사이드 스탠드 라이트
6	전쟁소리 맥아더 장군	02:07	공포!어둡게 / 맥아더 때 약간 밝게		
7	에스겔 37장	04:55	브라운 마리아 통곡 의상	청색 무용수 팔로우 밑바닥은 노랑	
8	새벽종이	00:50	완전 밝게		
	애국가	00:28	태극기 동영상		
	경제발전	03:26	불량학생 등장부터 빨강, 남색		
	가요	04:45	무용수 나올 때 전체 바닥은 빨강 사이드 스탠드 라이트 파랑으로 밝게~		
	선악말씀	00:14			
	부흥	05:36	소품 자리에 탐! 파랑으로 밝게		

<표4. 「70년, 회년의 춤」의 조명큐시트>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70년, 회년의 춤」은 민족의 번영과 미래 지향적 의식과 눈물, 기쁨, 환희의 감동을 무용극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 회년의 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고 있음을 선포하며 열방의 구원과 평화, 축복을 간구하고 기대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안무자의 안무의도

「70년, 회년의 춤」은 공동연구자인 박순자 교수의 총연출로 구성·안무되었으며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2015년 10월 20일 인터뷰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0년, 회년의 춤」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광복 이후 70년이 되는 2015년에 개인적, 신앙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기쁨의 해에 더욱 하나님께 공물을 구하며 이 민족이 은혜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중점을 두고 안무되었다.

둘째, 「70년, 회년의 춤」을 안무할 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쉬운 길이 아닌 고통의 길이라도 거듭난 국가로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잊지 말아야 할 국가적, 정신적 유산을 쉽게 전달하며 상기시키기 위함과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안무되었다.

셋째, 「70년, 회년의 춤」의 내용은 조선 후기, 일제식민지, 광복, 6·25, 경제발전, 해방 후 새마을운동, 자유의 시대 사회당, 자주민주주의 독립국, 결단, 공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으로 구성된 이유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시편119편 9절)”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고 구성하였으며 이것이 다음세대에 전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안무되었다.

넷째, 「70년, 회년의 춤」은 다양한 연령층의 무용수들이 투입되었다. 이에 기능적, 정서적으로 합당하게 청, 장년 무용수를 구분하여 배치하였으며 이는 굳이 기능적인 면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마음, 사랑,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의 간구이며 작품의 의미가 잘 전달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섯째, 현재의 기독교 무용작품은 한국의 역사성이나 사회성을 통한 작품이 많지 않지만 광복 이후 70여년과 그 이전의 참담한 조국에 대한 각성, 정진, 겸손이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에서 안무되었다.

여섯째, 「70년, 회년의 춤」은 시대변화를 표현하고, 알게 하며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느 한곳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작품 전반에 걸쳐 같은 비중으로 하나님께서 현재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마음과 이 나라의 아픔을 강조하였다.

이상 안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안무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겸손과 섬김으로 하고 선교무용이 그저 가벼운 율동과 모방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교무용은 기본적으로 지나친 분장과 화려한 의상을 삼가고 섬김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반적인 공연이 아닌 예배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영혼(성령)과 몸짓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을 기우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4. 공연단체

본 공연은 Argon Dance Company에서 준비되어지고 공연되었다. Argon Dance Company는 1989년 박순자교수를 단장으로 초교과 신앙인들 가운데 무용 및 예술선교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1998년 5월 23일 한국선교무용예술원으로 개원하였다. 이후 2007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하여 선교의 활동 영역을 넓혀 가면서 2011년 5월 23일 비영리법인 단체인 Argon Dance Association의 산하기관으로 재개편되었으며 초교과 신앙인들 가운데 무용 및, 예술 선교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오직 복음을 위해 친교, 봉사, 섬김, 나눔으로 협력하고 있다. 현재 함께하고 있는 단원은 한국선교무용예술원에서 2011년 비영리단체인 Argon Dance Association로 재구성될 때 등록단원이 100명의 정원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10~15 여명의 입단단원이 있었으며 2015년 현재 단장인 박순자를 포함한 60여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아르곤(Argon)의 뜻은 화학성분의 원소기호로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의 대표적 원소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원소로서 다른 원소들이 화학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원소인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 아르곤의 의미처럼, 겸손과 충성의 자세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 이라는 절대 진리를 선포한다. 즉,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아르곤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Argon Dance Company의 목적은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영광 올려드린다. 둘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다. 셋째,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무용선교를 통해 목은 받을 기경한다. 넷째, 무용 및 예술 분야에서 믿음이 있으나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일꾼으로 삼는다. 다섯 째, 자비량 선교를 통하여 가급적 단원들이 주도적이고 순전한 신앙을 지킨다. 여섯 째, 무용 및 예술 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을 통하여 국, 내외로 파송한다. 이상의 6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Argon Dance Company의 주요 활동 범위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적 행사 협력 (국가 및 국회기도회, 통일 전광대 등) 둘째, 세계 복음화를 위한협력(코스타, TaToo, 교민회행사, 한인교회 협력) 셋째, 타 예술 분야와 선교적 협력(C.C.C, 예수전도단, 미리암선교단, 극단파도소리, 국악팀, 일반 무용공연단) 넷째, 교육계와 협력(학교 채플 협력 및 중, 고등부, 대학부 선교 협력) 다섯 째, 교회와의 협력 (각 교회예배 무용 및 행사 협력, 영성수련회 협력) 여섯 째, 소외된 지역사회 협력(교도소, 노숙자, 병원, 특수여성, 노인 방문) 일곱 째, 군부대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숙명무용론 연구회, 목요찬양·무용제, Argon Dance Festival과 대한민국선교무용축제, 선교무용아카데미와 무용과의 크로스 오버 등의 공연예배 사역을 통해 참 진리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 하고 있다.

아르곤 댄스 컴퍼니의 무용 교육의 목표는 첫째, 성진 된 몸의 이해를 높인다. 둘째, 몸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셋째, 몸의 움직임에서 창출되는 언어를 도출하여 워십댄스의 표현 및 전달의 효과를 높인다. 넷째, 워십댄스를 위한 다양한 장르를 수용, 변형시켜 작품화 한다. 다섯 째, 선교적 차원의 워십댄스의 개발을 연구한다. 여섯 째, 워십댄스 지도자 및 무용수를 양육, 파송한다. 일곱 째, 해외 교회의 선교와 파송에 관련된 워십댄스 지도자 및 무용수를 준비 시킨다. 여덟 째, 성서 및 역사를 통한 기독교적 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와 예배, 선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별히 아르곤 단체의 구성원들은 무용전공의 유무, 학벌, 연령, 소속교단 등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입단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뜻을 가진 자, 선교에 뜻을 가진 자들이라며 이단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입단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르곤 댄스 컴퍼니(Argon Dance Company)의 구성원들은 전도사, 사모, 교사, 대학원생, 대학생, 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의 청, 장년층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렇듯 아르곤 댄스 컴퍼니(Argon Dance Company)는 Argon Dance Association 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한 전통한국무용과 창작무용, 워십댄스를 중심으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장르적 구분을 통해 선택적으로 작품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외 선교를 통하여 기독교무용 선교에 활발히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공연이력

「70년, 회년의 춤」은 2015년 8월 7일, 워싱턴 소재의 Northern Virginia Community College 내에 있는 NOVA theater에서 초연되었다. 공연은 2015년 미국 워싱턴 D.C의 박정숙님의 초청으로 평화선교한국무용단(Peace Mission Korean Dance Group)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한국일보(Korea Times), 중앙일보(The Korea Daily), 숙명여자대학교 워싱턴 동문회(Sookmyung Women's Unis., Alumnae Association of Greater Waashington),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 헬로우쉽교회(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FAITH U.M.C., 워싱턴한인천주교회(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의 후원과 세계한식요리연구원(The Worlds Korean Cuisine Reseachr Center)의 특별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본 공연에서는 1부에서는 평화선교무용단이, 2부에서 「70년, 회년의 춤」이 공연되었기에 특별히 사회자가 순서를 진행하였으며 박순자의 정기공연 제19회 「70년, 회년의 춤」이 시작되기 전 안무자를 관객에게 소개하고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작품이 공연되었다.

이후, 한국에서 공연된 「70년, 회년의 춤」은 분당의 S교회, 평택의 J교회, 서울 K교회, 서울 N교회, 대구 C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되었으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 IV. 「70년, 회년의 춤」에 대한 인터뷰

무용수와 관람자의 인터뷰는 본 공연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공연에 참여한 이들의 주관성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70년, 회년의 춤」이 공연된 순서대로 그 내용을 전개하였으며, 각 공연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통한 작품의 특성 및 객관적 의견을 수용할 수 있었다.

### 1. 무용수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는 「70년, 회년의 춤」에 참여한 각 연령의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무용수는 총 참여인원 26명 중 안무자를 제외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위하여 본 연구자를 제외하였다. 24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무응답자는 없었다. 「70년, 회년의 춤」에 참여한 무용수에 대한 기본 사항의 내용의 표5와 같다.

연령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3	5	11	4
성별	여성				

직분	청년	집사	권사	전도사
	5	10	5	4
신앙경력	모태신앙	10~20년	21~30년	31년이상
	9	4	5	6
기독교무용경력	5년미만	5~10년	11~15년	15년이상
	3	6	9	6

<표5. 무용수에 대한 기본사항>

참여무용수는 모두 26명으로 이번 공연에는 주로 40~50대의 무용수들이 참여하였다. 신앙의 경력은 모태신앙부터 30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기독교무용 경력 역시 짧게는 5년 미만에서 15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70년, 회년의 춤」에 대한 단답형질문과 그 결과는 다음의 표6과 같다.

질문		Yes					No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1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1	3	5	11	4					
2	귀 교회에서 공연되길 원하는가?	1	3	5	11	4					
3	타 교회에 초청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가?	1	3	5	11	4					
4	일반대중에게 공연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1	3	5	11	4					
5	관람 연령층	전 연령층 가능					24명				

<표6. 무용수 단답형 질문>

공연에 참여한 무용수의 경우 작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 공연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으며, 「70년, 회년의 춤」이 자신들의 교회와 더불어 타 교회에서도 공연되어지길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0년, 회년의 춤」에 대한 주관식 질문 및 답변은 다음의 표7과 같다.

질문		공통된 답변 Keyword	
1	「70년, 회년의 춤」을 공연하면서 기존 기독교무용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역사성	14
		사회성	1
		대중성	3
		신앙표현	2
		무용극	3
		애국	1
2	공연을 하면서 받은 감동이나 은혜가 있었는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역사하심	14
		애국심과 복음	6
		표현을 통해 얻는 감동	3
		무용답	1
3	일반대중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개이상의 답변도 있음	거부감 없는 선교의 도구	6
		공감	7
		기독교적 가치관 설정	1
		역사의 이해	6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과 은혜	8
		기타	2

4	대중적 요소는 무엇인가? ※2개이상의 답변도 있음	역사성		12
		사회성 및 대중성		5
		공감대 형성		6
		복음		2
		무용수들의 표현력		2
		기타	갈매미, 메시지, 애국심	
5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시 적당한 장소는 어디인가?	관계없음(실내·외 공연장 모두)		3
		실내극장	세종문화예술회관	11
			예술의 전당	
			충무아트홀	
			구민·시민회관	
		야외극장	시청 앞 광장	8
			광화문 광장	
			노천극장	
			백화점 야외무대 등	
6	영상매체를 통해 공개될 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2개이상의 답변도 있음	방송국		2
		보완점 없음		9
		연습(티테일연습, 동작의 정확성 등)		11
		70년대 이후의 줄거리 보완 필요		3
		막과 막 사이의 설명이 필요		4
7	공감과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 연령층은 어디인가? ※2개이상의 답변도 있음	없음		2
		10대 이하		19
		20대		6
		30대		5
		40대 이하		1
8	대중화 공연을 위해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2개이상의 답변도 있음	보완점 없음		6
		의상 및 소품의 변화		9
		음악의 보완		1
		작품 내용 보완		3
		연습(전문성, 디테일)		14
		무용수 충원		1
		종교적 인식이 더 필요		1

<표7. 무용수 주관식 질문>

상기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무용수들은 대다수 본 공연이 가지는 역사성이 다른 기독교무용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았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역사하심을 공연을 통하여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기독교무용이라 하면, 개인의 신앙고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으나 「70년, 회년의 춤」의 경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의 역사적 아픔에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보우하심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랑을 무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무용수들은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먼저 하였고기에 일반 대중에게 추천 할 수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70년, 회년의 춤」이 가지는 대중성의 대표적인 요소는 역사성이라고 보았다.

작품이 상연 될 장소로는 실·내외 공연장에 대한 뚜렷한 구별은 없었으며 TV나 영상매체를 통한 작품의 공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무용수의 과반 수 이상이 40대 이상이기에 내용에 대한 공감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관객들에게 좀 더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많은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경험치가 없고 책을 통하여 역사의 하나로서 지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10대 이하의 관객층에게서는 공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본 공연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무용수의 관점에서는 좀 더 많은 연습 그 중에서도 디테일한 표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2. 관객 인터뷰

「70년, 회년의 춤」을 관객 중 인터뷰에 응한 30명의 대상자들은 20~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 남녀 성비를 고려하였으며, 신앙의 경력도 모태신앙에서부터 다양하게 인터뷰하였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 중 기독교무용을 이전에 관람했던 관객들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기에 기존의 기독교무용과 「70년, 회년의 춤」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관객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의 표8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 기본사항					
연령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8	5	4	7	6
성별	남	8	여	20	
직분	청년	집사	권사	교역자	
	10	8	8	4	
신앙경력	모태신앙	10~20년	21~30년	31년이상	
	12	5	9	4	
기독교무용관람유무	Yes			No	
	26			4	
기독교무용이 다양하게 사용되길 원하는가?	Yes			No	
	30				

<표8. 관객 기본사항 >

상기의 기본 사항을 토대로 인터뷰한 「70년, 회년의 춤」에 대한 단답형 질문과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9과 같다.

「70년, 회년의 춤」에 단답형 질문												
질문		Yes					No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잘모 름	20 대	30대	40대	50대	60대
1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8	5	4	7	6						
2	귀 교회에서 공연되길 원하는가?	8	5	4	7	6						
3	타 교회에 초청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가?	7	5	4	7	6	1					
4	일반대중에게 공연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6	5	4	7	6	2					
5	관람이 적당한 연령층 ※중복답변 있음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 응답				
		15	8	4	4	5	7	2				

<표9. 관객 단답형질문 >

「70년, 회년의 춤」을 관람한 관객들은 본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본 작품이 자신



들의 교회에서 재공연 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타 교회에 본 공연을 추천하는 것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70년, 희년의 춤」에 대한 관객들의 주관식 질문 및 답변은 다음의 표10과 같다.

질문		공통된 답변 Keyword		
1	「70년, 희년의 춤」을 공연하면서 기존 기독교무용과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2개 이상의 답변도 있음	역사성	14	
		무용극	7	
		영성	4	
		표현(신앙적, 표정연기)	4	
		기쁨	2	
		공감	3	
		무응답	5	
2	공연을 보면서 받은 감동이나 은혜가 있었는가? ※2개 이상의 답변도 있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역사하심	10	
		애국심과 복음	2	
		표현을 통해 얻는 감동	10	
		영성	4	
		역사성	2	
		기타	6	
3	일반대중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개 이상의 답변도 있음	거부감 없는 선교의 도구	7	
		공감	3	
		애국심	2	
		역사의 이해	18	
		하나님의 은혜	4	
		몰입도	2	
		역사성	17	
4	대중적 요소는 무엇인가? ※2개 이상의 답변도 있음	사회성 및 대중성	6	
		공감대 형성	3	
		작품구성	6	
		무응답	1	
		관계없음(실내·외 공연장 모두)	6	
5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시 적당한 장소는 어디인가? ※2개 이상의 답변도 있음	실내극장	세종문화예술회관	9
			예술의 전당	
			충무아트홀	
		야외극장	구민·시민회관	8
			시청앞 광장	
			광화문 광장	
			노천극장	
			백화점 야외무대 등	
		기타(교회, 학교)	11	
		무응답	3	
		6	영상매체를 통해 공개될 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2개 이상의 답변도 있음	보완점 없음
연습(티테일연습, 동작의 정확성 등)	3			
음원다듬기	2			
종교성 배제	1			
설명이 필요	3			
무응답	4			

7	공감과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 연령층은 어디인가? 이상의 답변※2개도 있음	무응답	2
		10대 이하	19
		20대	15
		30대	8
		전 연령층 공감 가능	2
8	대중화 공연을 위해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2개이상의 답변도 있음	보완점 없음	5
		음악의 보완	5
		작품 내용 보완	14
		연습(전문성, 디테일)	7
		설명 필요	3
		끝재미	2
		종교적인 색채 배제	1
		무응답	6

<표10. 관객 주관식 질문 >

상기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70년, 회년의 춤」이 가지는 타 기독교무용 작품의 차이점은 역사성이 바탕이 되어있다고 많은 수의 관객들이 응답하였으며 스토리가 있는 무용극 형식이었다는 점과 그로인해 이해하기가 좋았다는 다수의 대답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뚜렷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다른 기독교무용과 차이점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공연을 관람하면서 무용수들의 표현을 통한 감동, 그 중에서는 표정과 손끝까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 은혜였다고 대답한 이도 있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감동이었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응답자 30명 중 26명이 기독교인 뿐 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70년, 회년의 춤」이 대중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머지 2명의 경우는 대중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닌 기독교무용 혹은 일반무용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더불어 본 공연이 대중화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역사의 이해라고 응답하였다. 본 공연은 구한 말부터의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무용극의 형식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을 통해 몰입도를 높임으로서 역사적 이해와 더불어 기독교적인 사상을 전달함으로 대중에게 거부감 없는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예술로서 대중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공연이 기독교무용이나 역사성과 사회성 및 대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의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다수의 관객들은 교회 뿐 아니라 실·내외 극장 어디에서라도 공연되어 질 수 있을 것이고 보았으며 특히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극장, 그 중에서도 뮤지컬전용 극장을 추천하는 대상자도 있었다. 더불어 좀 더 많은 대중들이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대학의 노천극장 혹은 서울 시청 광장과 같이 오픈되어져 있는 공간에서 무료로 많은 이들에게 공연되어지길 바라는 대상자도 있었다. 또한 유튜브 등과 같은 인터넷 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의 관객들은 1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공감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경험치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는 현대에 문화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낯설고 어렵지만 그 시대를 어우르는 「70년, 회년의 춤」은 스토리로 만든 무용극으로 어른 세대가 이해하기가 쉬웠으며 함께 향유하고 공감 할 수 있어 은혜였고 공감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독교정신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무용극을 통해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밑바탕의 응집력이 있었고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중성 있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 중 30대 남성 교역자는 무용 자체가 대중적이며 일반은총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보고 공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중적이라고 보았다. 대다수의 20대 관객들은 어른세대와 현재 젊은 세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라는 공통분모에 현재의 젊은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90년대 이후의 문화적 사건도 함께 구성된다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구할 수 있고, 거부감 없는 선교공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20~30대와 40대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들에게서 의견이 나뉘었던 것은 관람대상자가 20~30대의 경우는 10대 이하의 연령층에게는 대중화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40대 이상의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게 대중화 할 수 있으며 공연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역사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 연령층에 필요하다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대답하였고, 40대 이하의 연령층은 경험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함, 자신들 세대의 문화 보다는 어른 세대의 문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문화차이로 인하여 공감력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즉, 어른세대는 역사에 대한 당위성을 본 공연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당위성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음을 나타내고 있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이러한 부분을 억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며 역사의 당위성 보다는 대체적으로 문화향유를 통한 공감요소를 찾고 그 속에서 흥미와 신앙적 요소를 동시에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중화 할 수 있는 연령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작품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작품 내용의 보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0대~20대도 공감할 수 있는 80년대 이후의 사건들을 포함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젊은 세대를 위한 설명이 함께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으며 막과 막 사이의 연결이 길어서 흐름이 끊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음악이나 의상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상의 의견을 통하여 「70년, 회년의 춤」에 대한 관객들의 의견은 기독교인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대중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V. 「70년, 회년의 춤」에 나타난 작품의 특성

### 1. 역사성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였었던 우리나라는 긴 시간동안 역사문제로 일본과 대립을 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역사왜곡이라는 말이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된다.

「70년, 회년의 춤」은 구한 말과 일제시대의 모습에서 시작되어 6·25전쟁, 경제발전 등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대표 사건들을 모티브로 창작되었다. 70년이라는 긴 역사를 교과서가 아닌 무용예술을 통하여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삭제나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과 민족적 정서, 감정을 표현하였기에 중·장년의 관객들에게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청소년, 청년층의 관객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70년, 회년의 춤」에 사용된 음악과 의상을 통해서도 보다 쉽게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통무용의상과

전통음악의 사용,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기의 의상과 가요 등을 사용함으로 보다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무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0년, 회년의 춤」의 첫 번째 특성은 역사성이라 할 수 있겠다.

## 2. 사회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 세대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70년, 회년의 춤」은 안무되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참여했던 3·1운동은 나라의 해방을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한 전국규모의 민족적 나라운동이었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내가 아닌 우리가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공동체 정신이었다. 특히, 경제난 새마을 운동의 음악은 안무와 잘 어우러져 민족성, 사회성을 보여주므로 그 세대를 살았던 분들의 정서를 어루만져주었다. 뒤이어 경제발전은 그 속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점들을 무용극을 통하여 쉽게 표현함으로 지루함을 없애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듣고 있는 대중음악을 함께 사용함으로서 소통과 즐거움을 주었다. 그리고 종교적 색채를 중화함으로 일반인에게도 공개 할 만큼 현대 문화 사회에 맞도록 시도 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무용 공연예술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창조적이고, 보편적인 공연으로 사회적으로도 종교성이 부여된 문화 속 공연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 3.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70년, 회년의 춤」은 전 세대를 아울러 공감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적 정서를 극대화함으로 한국 전통무용이 기반이 된 재창작무용과 창작무용, 실용무용을 함께 안무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한편의 한국적 무용극으로 완성되었다. 여기에 기독교적 특성을 지닌 안무와 표현, 음악의 가사를 통한 감정전달의 도움을 받음으로서 기독교적 예술무용으로서의 작품의 완성도를 기울였다. 전통음악과 더불어 한국전통의 한복, 소품, 역사적 인물의 나레이션을 통한 사실적 전달, 현대화되면서 변화된 시대적 복장과 소품들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어우러짐을 거부감 없이 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수제천에서는 전통무용을 바탕으로 한 재창작과 한국전통의상을 사용하였고, 70년대의 새마을 운동과 경제발전에서는 당시에 입었던 복식을 사용하고, 음악도 가요 등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성을 더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안무자가 각 시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으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연 중 관객들의 눈물과 인터뷰를 통해 전해진 감동을 이야기 하면서 관객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전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그 세대를 지냈던 역사의 증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더불어 오늘날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음을 통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서 지루함 보다는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세대에게는 나라의 소중함,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함을 작품을 통해 전달함으로 애국에 대한 교훈과 대한민국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였다.

## 4. 다양한 관객층

「70년, 회년의 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역사성과 사회성이라는 작품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전 국민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구성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하나의 국민의식을 가지게 하는 힘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기에 그 시대를 살아온 세대와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대, 다음을 이끌어갈 세대 모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나라의 뿌리, 근원을 알게 하고, 과거의 아픔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70년, 회년의 춤」을 공연한 아르곤 댄스 컴퍼니의 구성원들 역시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과반을 이루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를 연기하고 무용으로 표현한다. 그 만큼의 무용에 진정성을 녹아낼 수 있으므로 무용수나 관객들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구한 말에서 70년대를 살아보지 못했던 세대들에게는 이 시대를 표현하기 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객에게 표현하기에 앞서, 무용수가 먼저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70년, 회년의 춤」이 대중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이라 사료된다.

## 5. 극적 요소

무용극에서의 극적 요소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함에 있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무용예술이라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견, 추상적이라는 편견이 많다. 무용예술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좀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언어라는 요소를 배제한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음악과 무대연출, 소품 등의 보조적 수단의 도움을 받아 보다 쉽게 작품의 내용,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70년, 회년의 춤」 역시 무용과 무용 사이를 극적요소를 사용함으로써 그 시대적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으며, 긴 역사의 흐름을 60분이라는 시간동안 표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쉽게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극적요소에 있어서는 무용수들의 표현력을 배제할 수 없는데 특히 본 작품에서는 6·25 전쟁 장면과 새마을운동, 경제발전에서의 사회적 문제들을 그 시대를 살았던 무용수들이 그 시대의 의상을 입고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진지함 속에서의 골계미를 나타냄으로써 관객들이 무겁게만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작품에 몰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70년, 회년의 춤」이 가지는 특성에 극적요소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역사성, 사회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 다양한 연령층, 극적요소들이 「70년, 회년의 춤」에 나타나는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바탕으로 나타난 이러한 요소들이 「70년, 회년의 춤」이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비(非)기독교인들에게도 소개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VI. 「70년, 회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및 제언

기독교적 예술에서 대중화에 성공한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오페라 Salome>, <현대 무용 Superstar Jesus Christ>, <뮤지컬 Godspell>, <조승미 발레단>의 작품을 통한 공통된 요소들은 성경의 스토리텔링이 원천 공급원이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알맞게 구성하여 종교성이 부여된 예술로서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켜 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 존재의 본성과 의미를 관객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도록 관객에게 질문을 던졌으며 그 질문을 토대로 공감을 이끌어 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70년, 회년의 춤」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신앙적 힘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드리워졌던 고난과 역경, 아픔을 이겨내고 현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을 표현함으로 역사성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올려드림으로서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와 인간이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 복음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70년, 회년의 춤」 역시 이러한 대중화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70년, 회년의 춤」이 가지는 대중화의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역사성이다. 70년이라는 긴 역사를 무용예술로 통하여 왜곡 없이 역사적 사실과 민족적 정서,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둘째, 사회성으로 3.1운동, 광복, 6.25전쟁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실감나게 표현 하였고 경제발전에 이어 사회적 문제를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잘 표현하였다.

셋째,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으로 한국적 정서를 극대화함으로 한국전통무용, 창작무용, 실용무용을 조화롭게 작품의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함으로 매끄러운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넷째, 어느 연령층에게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객의 다양성이다. 「70년, 회년의 춤」은 우리나라의 역사, 사회성을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 연령층이 관람하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었으며 역사적 서술이었으므로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다섯 째, 극적요소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는 무용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70년, 회년의 춤」에 참여한 무용수들은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동 시대를 살아온 연령층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로써, 「70년, 회년의 춤」이 가지는 역사성, 사회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 극적요소들이 본 작품 뿐 아니라 기독교무용의 대중화에도 필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70년, 회년의 춤」의 이러한 내용이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서 관객과 안무자, 기독교무용수 모두 공감을 통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 알게 되었다. 나아가 다양한 기독교예술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이 기독교 신앙에 가미되어 잘 어우러진 다양하고 새로운 기독교예술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통하여 문화적으로나 선교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과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무용은 전도 및 선교를 중심으로 공연되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무대 없이 그 환경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여, 무대로 사용되어 질 때가 많다. 온전한 예배와 효과적인 공연을 위해 사전 답사를 통하여 무대로 사용될 공간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위한 공간, 입·퇴장, 분장실 등 치밀한 사전적 준비와 연습이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객에게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 공연에 맞는 예배적인 의상, 내용과 역할에 맞는 분장, 작품의 이해를 돕는 조명, 무대장치 등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독교무용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서 회중이 방해 받지 않도록 철저한 기도와 영성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로써 완성도 높은 기독교무용 공연예술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관객은 감정을 넘어서 감흥과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무용 작품은 성서를 기본으로 하여 선교의 도구 및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작품의 창작이 수반되어 진다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 희년의 춤」은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의 기독교무용과는 차별된 작품이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역사라는 기본적 바탕과 성서의 말씀을 토대로 한국전통의 문화를 선택하여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 자연스러운 무대 연출, 무용수의 연기력 등이 조화를 이룬 기독교무용 작품을 구비함으로써 대중화에 성공적일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한국의 기독교 문화예술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연예술로서 기독교무용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정서, 사회성을 극대화한 무용공연을 제작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적 기술과 기독교무용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무용을 기본으로 한 기독교무용작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기에 한국 전통 무용과 함께 창작무용을 토대로 구성된 작품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서를 기반으로 시대적인 감각이 함께 가미된 작품의 구성과 자연스러운 스토리가 체계적으로 개발 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작품 내용이 관객들에게 좀 더 깊은 감동을 전달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용수들의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용수는 먼저 작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기도도 준비하며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무용수는 자신의 몸이 곧 성전임을 기억 하면서 내면의 순수함, 순전함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은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독교무용의 안무자는 전공, 비전공자의 구성을 잘 융합하여 단원들의 영성과 무용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화로운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 작품을 안무 할 때 안무자의 욕구로 무용수의 기량만 가지고 선택하기 보다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무용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안무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며, 무용수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기독교무용은 미션(Mission) 즉,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나친 홍보와 광고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믿음으로 나누면서 믿는 자들은 더욱 더 친밀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문화사역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무용은 후원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말씀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예술성 함양을 위해 집중해야하며 춤추는 목회자로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생명력 있는 몸짓으로 영혼구원이라는 기독교무용의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무용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작품들이 안무되고 공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기독교무용 작품들이 많아져 대중에게 공감되어 질 수 있다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대중예술로서의 기독교무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를 통해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독교무용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다. 기독교무용예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사이며 선물이다. 이 은사를 잘 개발하고 감사함으로 훈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미래의 기독교의 모든 문화예술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대중에게 확산될 것이며 감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순자 (2004). 21세기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 도서출판 금광
- 이종원 (2007). 무용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대한무용학회지, 대한무용학회제 51권
- 김수진 (2015). 기독교 예술관을 적용한 무용예술의 방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민지 (2012). 무용공연의 대중화를 위한 관객개발 방안 연구:국립무용단의 대표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수민 (2011). 기독교무용에서의 성령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태원 (1990). 춤 대중화의 대두와 그 중대의 방안. 예술과 비평, 여름호
- <http://m.pckworld.com> (2015.09.20)
- [http://www.kidoktimes.co.kr/sub\\_read.html?uid=157](http://www.kidoktimes.co.kr/sub_read.html?uid=157) (2015.09.17)